

“비싸도 OK”...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가심비로 뜬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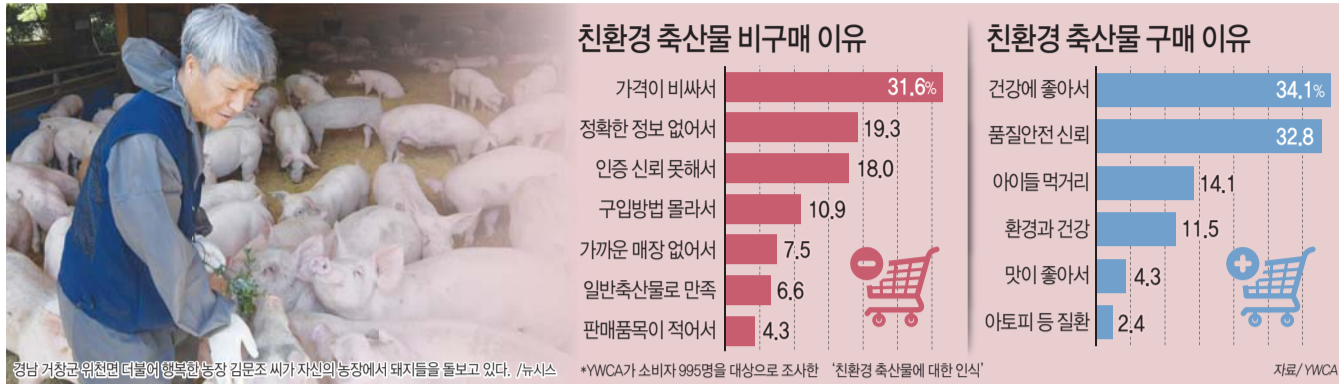
‘윤리적 소비’ 인식 소비자 늘어
“고가격도 인증제품 살 것” 70%
이마트, 전년 비 매출 42% 급증

소비자들의 먹거리 선택기준으로 ‘미닝아웃(Meaning out)’이 떠오르면서 동물복지인증 돼지고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식품은 물론, 동물 보호 등에 중점을 둔 윤리적 소비행위도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축산업계와 식품업계도 변화하는 소비심리를 사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동물복지인증 돈육 비싸도 매출올라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기반으로 한 소비행위인 미닝아웃이 소비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가심비’ 소비에서 이제는 식품 안정성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을 중시하는 ‘가심비’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축산물 소비패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 지난 2012년 36.4%, 2015년 66.6%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영동농장 김문조 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시스 *YWCA가 소비자 9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인식’ 자료/YWCA

대형마트의 동물복지인증 상품 출시도 늘고 있다. GS수퍼마켓은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동물복지 인증 농가 중 한 곳에서 돈육을 공급받아 동물복지 삼겹살과 목살을 고객들에게 선보였다.

전성만 GS리테일 축산MD는 “국내 양돈 농가는 12곳 밖에 없을 정도로 동물복지 축산물은 구하기 힘들지만 동물복지 상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차별화된 동물복지 삼겹살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마트도 2016년부터 PK마켓 경기 하남점을 시작으로 동물복지 돼지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이마트 성수점, 용산점, 양재점, 역삼점 등 10개 점포로 확대했다. 이마트의 동물복지인증 삼겹살은 100g당 2270원으로 일반 삼겹살 판매가인 1680원보다 35% 비싸지만 매출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2월 기준 동물복지 돈육제품(삼겹살,심,앞다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1%나 늘었다.

◆돈보다豚이 먼저인 시대 오나
축산업의 조건으로 동물보호 축산환경, 동물관리방법 등 동물복지요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과 동물의 복지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웰페어(One-Welfare)’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좋은 먹거리를 추구하는 만큼 동물에게도 이로운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에는 동물복지인증 양돈농장은 전국에 12곳이 운영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제4조)에는 돼지관리방법(관리자의 무, 돼지의 상태 점검, 급이 등), 사육시설 및 환경(사육시설·공간, 자동화·기계화 설비 등) 등의 체계적인 기준도 명시돼

있다. 특히 스톨사육(개별 감금) 금지, 돼지증량별 사육공간, 돼지의 단미(꼬리 짜르기)기준, 돼지의 행동유구를 위한 보조물 설치 등 섬세한 기준을 마련해 확고한 동물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백동진 주무관은 “돼지복지인증은 모든의 임신 기간을 제외하고 스톨 내 감금사육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농장주들의 관심이 늘고 있어 동물복지 농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동물복지 상품이 출시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상품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하는 것이 동물복지 상품의 업계시장 안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1@metroseoul.co.kr

미닝아웃(Meaning out)이란?

소비자 운동의 일종으로, 정치·사회적 신념과 같은 자기만의 의미를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빅데이터 年 38억건 분석

전남 나주에 빅데이터센터 개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정보센터(전남 나주 혁신도시 소재)에 ‘우정사업 빅데이터센터’를 7일 개소하고, 우편과 우체국금융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센터는 연간 38억 건의 우편물류 정보와 하루 평균 2400만 건의 우체국 금융거래 정보 등 시스템에 보관되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다. 또 전국 25개 우편집중국 우편물 구분기에서 처리되는 정보와 우체국쇼핑을 이용하는 고객패턴 등 사용 후 버려지는 데이터도 수집해 분석한다.

빅데이터센터는 우선 업무별로 흩어져



‘우정사업 빅데이터센터’ 현판식이 7일 나주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열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현판 막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보관되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해 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빅데이터센터를 운영

해 우편, 우체국금융 관련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인터넷·SNS 등 고객 니즈 정보와 결합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근로시간 단축 위한 후속조치 추진”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총력”

정부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조기에 정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신규 채용이나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으로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인식·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과 고용문화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제외 시행시기와 연계해 집중감

독을 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과로 사회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일부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채용·구인 등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일부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체계 변화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근로조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고용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전년 기준으로 102만 9000명을 기록한 것에 관해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 차관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최종구, 홍콩서 코스닥 상장 유치

회계개혁·주총 활성화 등 정책 소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홍콩에서 코스닥 시장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최 위원장은 7일 한국거래소 주최로 홍콩 아일랜드 Shangri-La 호텔에서 열린 ‘코스닥 글로벌 기업설명회(IR)’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회계개혁,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스튜어디스 코드 확산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성장잠재력 중심의 상장요건 전면 개편 등 이번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통해 코스닥을 투자 매력도가 있는 건전한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컨퍼런스, KRX300 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7일 홍콩 아일랜드 Shangri-La 호텔에서 글로벌 IR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수’에 편입된 코스닥 상장기업 15개사와 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간 일대일 미팅도 진행됐다.

올해로 11번째인 이번 IR 컨퍼런스는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참석한 글로벌 투자자 수도 전년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중미 향만시장 개척 물꼬 해수부, 엘살바도르와 맞손

정부가 엘살바도르와 손잡고 중미지역 향만시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8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엘살바도르 공항향만청(C-EPA)과 향만 기본계획 보고회 및 향만개발 협력방안 협의회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Acajutla)항과 라 유니온(La Union)항 향만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고 향후 실행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카후틀라항은 엘살바도르 향만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제1의 무역항이며, 라 유니온 항은 아카후틀라 항에 집중된 물동량을 분산하고 인근 국가의 물동량을 흡수하기 위해 중점 개발하고 있는 항만이다.

해수부는 엘살바도르 공항향만청과 체결한 ‘향만개발운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두 항만에 대한 향만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령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각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